AI시대에도 본질 변하지 않는다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의 발전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창작 능력을 보이며, 예술·교육·법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불교적 관점에서 AI의 진화와 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본다. AI의 급격한 발전 또한 무상의 법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쌓아온 지혜와 기술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AI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희석시키거나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를 강조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AI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이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AI의 윤리적 문제, 정보의 왜곡, 인간의 책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연기의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결국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한다.

AI 통해 나타날 삼독심 경계해야
자비 지혜 바탕돼야 공존 가능해
中道 가르침, AI시대 필요한 해법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주식 거래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 시장을 왜곡하거나, 생성형 AI가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이 탐욕과 집착으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좇아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I가 의료 진단에서 오작동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영상 판독 시스템이 암을 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기계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가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AI의 진단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마음가짐이며, 인간이 주체적으로 기술을 조절하고 윤리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도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윤리를 바탕으로 기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으며, 보다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두 개의 날개가 조화를 이뤄야만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기술과 인간성 또한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AI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불교가 강조하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대법원 판례와 장애인 접근권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25년이 시작되면서 1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 사찰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다시 살피게 된다. 불교문화 순례나 찾아가는 법회 등 일부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찰의 경내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불편한 게 많아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의미 있는 판결을 살펴본다.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장애계, 법조계 등이 합심해 6년 정도에 걸친 소송 결과로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당사자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건물 접근권과 관련, 장애인 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의 작은 실마리를 만드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정부가 지체장애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원심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소매점 편의시설 미설치 6년 소송
지난해 12월 장애인 접근권 인정
'모두의 1층' 위한 노력들 이어져야

24년 넘게 고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8년 제정된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 때만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전국 편의점의 3%(2019년 기준)만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 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것은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을 이용하도록 이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가 어떤 건지 장애계와 사회에 중요한 과제를 만들었다.

2025년 1월 24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예지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을 위해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1층 외의 다른 층으로의 접근권 확보, 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인에게 시설 설치 의무부여 등 모든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나왔다. 앞으로 정부의 실효적 접근권 증진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는 불교용품점과 종무소 등 사찰의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란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불교계도 함께 깊은 고민과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 시기다.

모두의 접근권 증진을 통한 행복추구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 장애불자들의 수행의 접근권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모색과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社 說

동국대 '전법특임교수' 신설에 부쳐

동국대가 교내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한다는 소식이다.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지위 보장을 통한 전법 활동 확대를 강조했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기실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의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스님은 자신의 연구·학업활동이나 사찰 행정 업무 이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활동해왔다. 그러다보니 전법행의 집중도와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문적인 불교 강의와 수행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장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동국대가 새롭게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존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포교·전법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4개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듀이카(구 전산원)에 불교동아리를, WISE캠퍼스에는 6개 불교동아리를, LA캠퍼스에도 1개의 불교동아리를 창립시키며 캠퍼스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지난해 불교동아리 창립을 통해 학생 활동에 기반한 포교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올해 동국대는 전법특임교수 제도 신설을 통해 포교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건학 120주년을 앞둔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재건 원각사, 노인복지 성지되길

사회복지재단 원각이 추진했던 종로 원각사 재건 불사가 회향했다. 원각사는 고려시대부터 흥복사로 불리며 내려오던 것은 조선 세조10년(1464년)에 새로 낙성했다. 현재에도 남아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와 〈원각경〉 언해본이 봉안됐다. 하지만 연산군은 원각사를 연방원이라는 이름의 기방으로 만들어 폐찰시켰다. 창건 560년, 폐찰 520년 만에 원각사의 역사성을 계승한 새 도량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조계종 원각사는 2월 12일 이전한 도량에서 처음 보인 행보는 노인 무료 급식이었다. 이날 원각사 무료급식소 520년만의 도량 재건과 정원대보름을 기념하며 어르신들에 점심공양과 함께 땅콩, 콩 백설기, 두유 등 간식을 나눴다.

조선왕실의 원력으로 세워진 원각사는 노인 복지라는 시대적 화두를 담아내고 있다. 1990년대 보리 스님이 시작했던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는 노인 복지라는 말이 생소했던 시절, 소외받고 있던 노인들에게 무료 공양을 제공했다. 봉사와 시주로 운영됐던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현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이 계승했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섬이기도 하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한끼 식사도 근근이 이어나가는 것도 어려운 처지다. 이들에게 작은 쉼터 제공하는 것은 '자리이타'라는 대승불교의 기치를 계승하는 일이다. 520년만에 재건된 종로 원각사가 노인복지의 성지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2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2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2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